

제목: "반석 위에 믿음"

말씀: 마태복음 7장 24-27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흔들리기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은 굳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 1) _____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 2) 하나님과 늘 _____ 삶이 되어야 합니다.
- 3) _____이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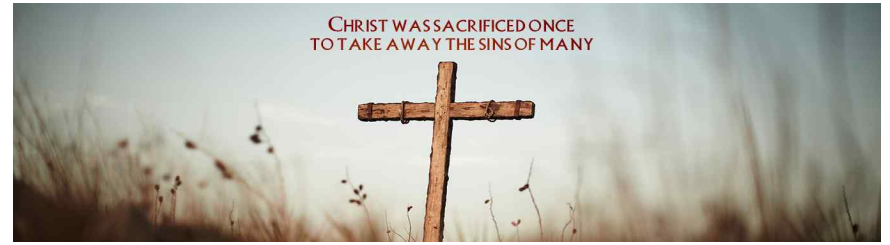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7장 24-2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7: 24-27 신약 10 페이지 President
- 말씀 "반석 위에 믿음" 김성민 목사
Message Upon The Solid Rock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선배 목사님)

몇 년 전 부 목사 시절 담임목사님이셨던 이제는 80세가 훨씬 넘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당시 1년여 만에 받은 전화였다. 뉴저지 따님 억으로 한 달 간 오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셨다며 잘 지내느냐고 물으셨다. 목사님께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돕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모른다. 몇 달 뒤 한 번 만나자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던 또 다른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3세에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이였다. 그 목사님은 평생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가까운 분이셨다. 한국과 미국 또한 중동지역과 아프리카를 위해 미국 교단에서 64년간 수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였다. 그 목사님은 병이 발견되기 바로 전까지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셨다.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는 그분들에게 늘 존경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였다. 이전에는 어떤 사역 결과를 냈느냐는 것에 따라 존경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80이 넘은 목사님들의 인생을 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반짝 사용 받는 도구도 있겠으나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웠고 그 목사님들이 내 주위에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고마웠다.

우리는 결과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 평생 쓰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믿음 생활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향기를 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3-35절)라고 하며 자신의 결단을 고백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그 목사님과 전화로 대화 하며 여쭙어 보았다. “목사님 미국으로 그냥 들어 오시지요? 사모님도 안계신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들어가면 아주 은퇴요. 여기에 있어야 가끔이라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겠나?”

목사님은 지금 연로하셔서 사역지가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에 마치지 않는 천국까지 연결되는 귀한 것임을 알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서 말씀 묵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